

# 2015 유우군능력검정사업 결과 시상식 개최

## CJ 낙농가 29농가 수상의 영광 차지해

한국축육개량협회 주최한 ‘2015 유우군능력검정사업 결과 보고회’가 지난 4월 11일 경기도 이천 미란다 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축육개량협회는 최우수 검정회 및 우수 검정회, 최우수 검정위원, 규모별 305일 유량최우수 목장, 305일 유량 최고 증대 목장, 최고 생애유량 생산우, 분만나이별 최고 유량 생산우, 본회검정 선형심사 최우수목장, 전국 선형심사 최우수목장 등 각 부문에 대한 수상자를 엄선했다.



그 결과 CJ제일제당과 함께 하는 검정회 중 최우수 검정회 부문에서는 청주 검정회가, 우수검정회 부문에서는 세종, 평창 검정회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305일 유량 최우수목장 부문에서는 가람목장 신병국 대표, 규모별 305일 유량 최고목장에서는 남촌목장 양병철 대표가 수상하는 등 총 14부문 등에서 29개소농가들이 수상의 기쁨을 차지했다.

CJ제일제당 조일엽 축우PM은 “2015년도 305일 검정종료 성적은 1만455kg으로 2014년 대비 278kg이 증가했으며, 유지량 394kg, 유단백량 336kg 증가했다. CJ제일제당 생물자원 사업부문은 작년부터 한국홀스타인검정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검정농가들의 목장성적 개선에 노력을 해오고 있다.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올해 CJs양가들의 목장성적 향상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각 부문별로 수상의 영광을 안은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 앞으로도 명성에 걸맞게 농가 수익에 더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2015년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최우수농가 선정

대한사료(주) 우수 고객인 성광목장(사장 김성곤)과 성실목장(사장 방의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우군 능력검정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우군 능력검정 사업은 197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젖소개량사업소에서 한국 젖소 유전자원 확보를 위하여 시작한 사업이다.



최우수농가로 선정된 성광목장 김성곤 대표는 “젖소는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 균일도가 가장 중요하다. 대한사료의 제품 ‘밀크프리미엄 후레이크’는 제품 균일도가 뛰어나고, 옥수수를 1차로 한번 찌고 난 이후에 후레이크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얇고 소화력이 뛰어나 이용하고 있다.”고 대한사료 제품이용 후기와 소감을 밝혔다.

성실목장(사장 방의남)은 작년에 이어 종합성적 4위에 선정되었다. 방의남 대표는 “목장의 생명은 주인이 자주 보는 것이다. 소는 ‘주인의 발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라며 낙농가의 기본자세인 성실함을 강조했다.

대한사료 사료사업부 백창기 상무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다시금 대한사료의 품질과 담당자의 컨설팅 능력이 업계최고라는 점을 증명하였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품질을 향상하고, 고객 농가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